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및 실습만족도의 차이 비교

이 혜 숙¹ · 김 은 주¹

¹경인여자대학 간호과 교수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Lee, Hea Sook¹ · Kim, Eun Joo¹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Purpose: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experience in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difference of grade. **Methods:** A total 238 nursing students (second grade: 141 students, third grade: 97 students) from K. Womens' College were provided with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from July 26, 2006 to July, 30, 2006. Perceived stress was measured using Perceived Stress Scale. Coping was measured using Coping Responses Inventory-Adult form. Satisfaction of clinical experience was measured using Satisfaction Inventory.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12.0 program. **Result:** Participants showed that a high level of perceived stress score $2.71 \pm .47$ of total 4 (2nd grad) and $2.67 \pm .35$ of total 4 (3rd grade). Approach Coping Scales score of coping strategies was 68.19 ± 6.06 (2nd grade), 63.38 ± 6.69 (3rd grade) of total 96, then coping mechanism's mean among 2nd grade nursing students was higher than 3rd grad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score of clinical experience in 2nd grade nursing students was $3.01 \pm .32$ and higher than 3rd grade ($2.99 \pm .38$).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r = -.264$ ($p = .000$) between perceived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satisfaction.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r = .154$ ($p < .05$) between satisfaction score of clinical experience in nursing students and approach coping scales score. **Conclusion:** With these findings, we found that the more approach coping level, the mor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t is needed to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ethod and coping strategies for nursing students to improve their coping ability and prepare qualified nursing profession.

Key words : Coping, Nursing student

주요어 : 대처, 간호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Eun Joo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Gyesangil 101, Kyeyang-gu, Incheon, Korea

Tel: 82-32-540-0190 Fax: 82-32-555-2614 E-mail: kimeju@kic.ac.kr

투고일: 2008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20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크게 인간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이를 적용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교육 중에서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함은 물론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Elrich, 1967; Han, 2000; Park & Kim, 2000; Seo, 2006). 그러나 학생들은 이론적 확립이 완성되기 전에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현행 교육 제도 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은 학생들의 실습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교육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도나 만족도는 부정적이며 이론과 실습과의 차이로 인한 혼돈, 비교육적인 실습환경,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부족, 단순한 간호실무의 반복, 전문지식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등으로 실습 중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두려움, 불안, 피로, 분노 등을 경험하고 있다(Ko & Kim, 1994; Park & Kim, 2000). 실습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학생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간호사로 성장 시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Cho & Kang, 1984; Peggy, 1984).

Cater(1982)는 간호학생들이 간호교육 그 자체에서도 심한 스트레스, 불안, 불만족을 경험하지만 특히 간호 대상자인 아픈 환자와 가까이 있으므로 더욱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임상실습 경험에서의 갈등과 불안, 긴장을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은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흥미를 잃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Park, 2001).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내면화 되면 간호 대학생 자신의 건강과 건강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간호 및 간호 전문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적의 학습과 간호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Bell, 1991; Lindop,

1993).

대처란 내, 외적 갈등을 감소시키면서 참고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진 의지적 행동 노력(Chung & Yang, 1993)으로,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외부의 환경적인 요구와 내부의 개인적인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개인의 능력을 벗어나게 될 때 이를 해결하거나 관리함으로써 평형상태를 유지하려는 대처방법을 사용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임상실습 적응력을 높이는 학습 환경의 조성과 효율적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Oh, 2000).

21세기 대학 교육은 직접적 수요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간호교육 역시 간호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이들의 만족도를 고려할 때가 된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법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임상실습 목표 및 실습지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고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법과 실습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임상 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적인 실습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들의 학년별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들의 학년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을 파악하고 차이를 검증한다.
- 3) 간호대학생들의 학년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을

파악하고 차이를 검증한다.

- 4)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검증한다.

3. 용어 정의

1) 대처방법

대처란 내, 외적 갈등을 감소시키면서 참고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진 의지적 행동 노력(Jung & Yang, 1993)을 말하며,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외부의 환경적인 요구와 내부의 개인적인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개인의 대인 능력을 벗어나게 될 때 이를 해결하거나 관리함으로써 평형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대처방법이라 한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Coping Responses Inventory-Adult (Moos, 1992)를 간호학 교수 1인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 내용, 지도, 실습 환경, 실습 시간 및 평가에 대한 반응의 척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Lee, 1978)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한 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비교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인천소재 전문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2학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학년 1학기부터 실습을 시작하였으므로 2학년은 6주의 실습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3학년은 18주의 실습경험이 있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6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연구 대상 중 자료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2학년 141부, 3학년 97부로 총 238건이었다.

3. 연구 도구

1)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Cohen(1988)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이해경(2003)이 번역하고 수정한 것 중 임상경험영역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1점에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4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해경(2003)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 대처방법 측정도구

Coping Responses Inventory(Moos, 1993)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처방법의 하부영역은 적극적 대처방법(Approach Coping Scales)과 회피적 대처방법(Avoidant Coping Scales)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는 .75점이었다.

3)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는 Lee(1978)가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의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총 5개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에 관한 만족도, 실습 지도에 관한 만족도, 실습 환경 관련 만족도, 실습 시간과 관련된 만족도 및 실습 평가에 관한 만족도 등이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

도는 .74점 이었다.

연구 결과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학년별 임상실습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 비교검증은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238명으로 나이의 평균은 2학년은 21.14(±2.07)세였으며 3학년은 22.38(±1.61)세였다. 종교 분포는 2학년은 기독교인 학생은 34.1%였으며 3학년은 34.0%였다. 이에 비해 종교가 없는 학생은 2학년이 46.8%, 3학년은 50.5%였다. 학생들의 성격은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내향적 보다는 많았으며 외

Table 1. 일반적 특성

(N=238)

변수	2학년(n=141)		3학년(n=97)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나이	21.15±2.07		22.38±1.61		
종교	기독교	48	34.1	33	34.0
	천주교	22	15.6	10	10.3
	불교	5	3.5	5	5.2
	종교없음	66	46.8	49	50.5
성격	외향적	47	33.4	33	34.0
	내향적	15	10.6	8	8.3
	중간	79	56.0	56	57.7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	131	92.9	87	89.7
	한부모동거	5	3.5	10	10.3
	조부모동거	3	2.1	0	0.0
	기타	2	1.4	0	0.0
지각된 성적	상위권	10	7.1	6	6.2
	중상위권	56	39.7	44	45.4
	중하위권	62	44.0	40	41.2
	하위권	13	9.2	7	7.2
학과지원시 적성고려여부	예	91	64.5	52	53.6
	아니오	50	35.5	45	43.4
간호학과 지원동기	취업용이	79	56.0	56	57.7
	봉사정신	9	6.4	7	7.2
	성적고려	5	3.5	3	3.1
	주위권유	26	18.5	18	18.6
	기타	22	15.6	13	13.4
학과만족도	매우 만족	7	5.0	12	12.4
	만족	63	44.7	35	36.1
	보통	56	39.7	37	38.1
	불만족	14	9.9	11	11.3
	매우불만족	1	0.7	2	2.1
학교생활만족도	매우 만족	6	4.3	7	7.2
	만족	38	27.0	29	29.9
	보통	71	50.4	51	52.6
	불만족	21	14.8	7	7.2
	매우불만족	5	3.5	3	3.1

향과 내용의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학년은 56.6%, 3학년은 57.7%이었다. 학업 성적에 대한 지각은 2학년의 경우 중하위권과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상위권과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많았으며, 3학년의 경우는 반대로 상위권과 중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간호과 지원 시 적성을 고려했다고 대답한 2학년 학생이 64.5%였으며, 3학년 학생은 53.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간호과에 지원한 동기는 졸업 후 취업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모나 교사의 권유였다. 대상자의 학과만족도는 2학년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9.7%였으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0.6%에 해당되었으며 3학년의 경우, 4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3.4%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학년의 경우 31.3%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8.3%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학년의 경우 37.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0.3%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

2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4점 만점 중 평균 2.71(±0.47), 3학년은 2.67(±.35)로 나

Table 2. 학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N=238)

학년	Mean±SD
2학년(n=141)	2.71(± .47)
3학년(n= 97)	2.67(± .35)

타났으며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적극적인 대처유형은 총 96점 만점에 2학년은 68.19(± 6.06)점을 보였으며, 3학년은 67.97(±6.77)점을 보였다. 적극적인 대처유형 중 하부영역에서는 2학년의 경우, 방법규명(Seeking Guidance)과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3학년은 논리적 분석(Logical Analysis)와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는 2학년, 3학년 모두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 중에서 방법규명(Seeking Guidance)에 대한 학년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t=3.253, p=.001)(Table 3). 회피적인 대처유형은 총 96점 만점에 2학년이 63.38(±6.69), 3학년은 65.95(±6.82)점이었으며, 하부영역에서는 2학년의 경우, 수용 혹은 단념(Acceptance or Resignation)과 지각된 회피(Cognitive Avoidance)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3학년 역시 수용 혹은 단념(Acceptance or Resignation)과 지각된 회피(Cognitive Avoidance)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에 비해 정서적 표현(Emotional Discharge)은 2학년, 3학년 모두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 중에서 지각된 회피(Cognitive Avoidance)의 학년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

Table 3.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

(N=238)

항 목	2학년(n=141)	3학년(n=97)	t(p)
	Mean ± SD	Mean ± SD	
적극적대처유형(Approach Coping Scales)	68.19 ± 6.06	67.97 ± 6.77	.256(.798)
논리적 분석(Logical Analysis)	17.02 ± 2.10	17.41 ± 2.21	-1.351(.178)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	15.76 ± 2.14	16.23 ± 2.45	-1.526(.128)
방법 규명(Seeking Guidance)	17.80 ± 1.84	16.99 ± 1.99	3.253(.001)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17.48 ± 1.99	17.23 ± 1.87	.982(.327)
회피적대처유형(Avoidant Coping Scales)	63.38 ± 6.69	65.95 ± 6.82	-1.78(.076)
지각된 회피(Cognitive Avoidance)	16.34 ± 2.57	16.92 ± 2.34	-1.98(.049)
수용혹은단념(Acceptance or Resignation)	16.76 ± 2.26	17.33 ± 1.93	2.48(.117)
대안 간구(Seeking Alternative Rewards)	15.85 ± 2.42	16.23 ± 2.32	.18(.670)
정서적 표현(Emotional Discharge)	14.43 ± 2.49	15.61 ± 2.60	.34(.558)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1.98, p=.049$) (Table 3).

4.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2학년의 경우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3.26 \pm .58$),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2.96 \pm .55$). 3학년의 경우는 실습내용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3.11 \pm .55$), 실습지도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2.71 \pm .47$). 이런 차이 중에서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학년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5, p=.004$) (Table 4).

5.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

와의 관계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64 \sim .135, p=.000$)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서는 회피적 대처유형과의 상관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330 \sim .181, p=.000$). 즉 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유형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유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r=.154, p=.000$) (Table 5).

논 의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식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확인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식, 임상실습 만족도

Table 4. 학년별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N=238)

내 용	2학년 (n=141)		3학년(n=97)		t(p)
	Mean	± SD	Mean	± SD	
실습내용 만족도	3.15	± .47	3.11	± .55	.556(.579)
실습지도 만족도	2.69	± .55	2.71	± .47	-.1679(.868)
실습환경 만족도	2.96	± .48	3.01	± .51	-.766(.444)
실습시간 만족도	3.26	± .58	3.02	± .62	2.95(.004)
실습평가 만족도	3.03	± .45	3.06	± .45	-.495(.621)
총점	3.01	± .32	2.99	± .38	.366(.715)

Table 5.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

항 목	실습 스트레스	내용 만족	지도 만족	환경 만족	시간 만족	평가 만족
적극적대처유형(Approach Coping Scales)	.094	.154*	.102	.036	-.001	-.012
논리적 분석(Logical Analysis)	.020	.147*	.079	.079	-.016	-.023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	.076	.141*	.115	.115	-.082	-.098
방법모색(Seeking Guidance)	.121	.131	.053	.053	.066	.123
문제해결(Problem Solving)	.080	.034	.120	.120	.045	.031
회피적대처유형(Avoidant Coping Scales)	.220**	-.069	.078	.052	-.140*	-.039
지각된 회피(Cognitive Avoidance)	.181**	-.142*	-.009	-.009	-.170*	-.048
수용 혹은 거부(Acceptance or Resignation)	.182**	-.108	.039	.039	-.107	.007
대안 간구(Seeking Alternative Rewards)	-.023	.099	.084	.084	.007	-.041
정서적 표현(Emotional Discharge)	.330**	-.081	.083	.083	-.126	-.040
실습스트레스		-.192**	-.243**	-.264**	-.228**	-.135*

* $p < .05$, ** $p < .0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2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4점 만점 중 평균 $2.71(\pm .47)$ 이었으며 3학년은 $2.67(\pm .35)$ 로 2학년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한 분야로 지식, 기술, 태도를 자극하는 것으로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간호현장에서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간호를 제공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으로 필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Carter(1982)는 간호학생들이 간호교육 그 자체에서도 심한 스트레스, 불안정, 불만족을 경험하지만 특히 간호대상자인 아픈 환자와 가까이 있으므로 더욱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Park, Kim, Park, Kim과 Kim(2005)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동안 나타나는 스트레스, 불안과 피로감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5점 만점 중 평균 3.87점 정도를 보였으며 2학년보다 3학년이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학교마다 고유한 실습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배제하더라도 간호대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임상실습의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중재방법으로 연구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회적이었거나 혹은 일부대학에 치중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간호대학의 실습교육에 대해 간호교육평가원에서 규제와 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고려한 대안적인 실습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2학년, 3학년 모두 적극적인 대처유형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 즉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는 대처방법인 적극적인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해결이나 논리적 분석등의 논리적인 과정들을 이용하려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대처방법을 학년별로 비교하면, 3학년은 2학년보다 적극적인 대처유형의 평균점수는 낮았고, 회피유형의 평균은 오히려 높았다.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중심의 대처유형 이용 정도가 높았으며 스트레스 반응도 높게 나타났던(Ha, Han, & Choi, 1998)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으며 Nam(2007)의 성격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동안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결과, 문제중심 대처방법을 정서중심 대처방법보다 빈번히 사용하고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처음 실습을 시작하는 2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3학년의 경우, 다양한 실습현장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현장의 노출은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에 비해 회피적 대처방법을 빈번히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되, 실습과 관련된 대처방법을 졸업할 때까지 긍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효율적인 교과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2.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만족도와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서는 회피적 대처유형과의 상관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유형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a 등(1998)의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중심 대처 유형과 스트레스 반응과는 정적관계, 문제중심 대처와 스트레스 반응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밝힌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 대학생이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즉 문제중심 대처 능력이나 적극적 대처능력이 개발되어진다면,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적극적인 대처유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반응이나 회피적 대처유형의 점수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방법이나 문제해결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울러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유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는 임상 실습 만족도와 실습 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면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아울러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유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차적인 교육 목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아울러 적극적 대처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실습내용의 조절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Park 등(2005)의 연구결과, 실습과제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던 결과들이나 집단회 영역에서의 높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실습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안을 모색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및 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실습 스트레스는 3학년보다 2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2학년인 경우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습 스트레스는 실습만족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유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각 학년별 실습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교과과정 모색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경인지역 소재 K대학 재학 중인 간호학 실습을 경험한 2학년 141명, 3학년 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대상자 나이의 평균은 2학년은 21.14(\pm 2.07)세, 3학년은 22.38(\pm 1.61)세이었다. 학생들의 성격은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내향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많았다.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2학년의 경우 4점 만점 중 평균 2.71(\pm .47)이었으며, 3학년인 경우는 2.67(\pm .35)이었다.
3.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2학년은 68.19(\pm 6.06)점, 3학년은 67.97(\pm 6.77)점이었다. 적극적인 대처방법 중 하부영역에서는 2학년은 방법규명과 문제해결이, 3학년은 논리적 분석과 문제해결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방법규명에 대한 학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2학년의 경우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3.26 \pm .58),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2.96 \pm .55). 3학년의 경우는 실습내용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3.11 \pm .55), 실습지도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2.71 \pm .47). 이런 차이 중에서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학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5$, $p=.004$).
5.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64\sim.135$, $p=.000$)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서는 회피적 대처유형과의 상관성이 높았다($r=-.330\sim.181$, $p=.000$).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학년보다 2학년이 많았으며, 대처방법에서 2학년이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에 대해서 시간,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3학년 및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또는 다른 건강관련 전문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

해 볼 것을 제안한다.

2.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실습 평가 항목에 관한 반복연구와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습 평가에 관한 여러 과목들 간의 계획된 협력이 요구된다.
3.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중심의 적극적인 대처 방식에 관한 중재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Bell, M. L. (1991). Learning a complex nursing skill: Student anxiety and the effect of preclinic skill evalu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5), 222-226.
- Cater E. W. (1982). Stress in nursing students dispelling some of the myth. *Nursing Out Look, April*, 248-252.
- Cho, K. J., & Kang, H. S. (1984). The correlation of self esteem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 Chung, S. Y., & Yang, J. H. (1993). A study on types of stress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3*(2), 269-283.
- Cohen, B. J. (1988). Assessing stress and coping in nursing students. In Waltz, C. F. & Strickland, O. L. (Eds.), *Measurement of Nursing outcomes: Volume 3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ducation and practice*(pp.323-34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Elrich, H. (1967). The clinical education of the medical student.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42*.
- Ha, N. S., Han, K. S., & Choi, J. (199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tress respons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2), 358-368.
- Han, S. J. (2000). A study on perceived empowerment and practical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6*(1), 132-146.
- Ko, S. H., & Kim, K. M. (1994). A study on fir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Nurse, 33*(2), 9-1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Lee, H. K. (2003). A study on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Nursing, 12*(4), 586-593.
- Lee, S. J. (1978). Level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0*(2), 23-24.
- Lindop, E. (1993). A complementary therapy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individual stress among student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10), 1578-1585.
- Moos, R. H. (1993). *Coping responses inventory: CRI-Adult Form Professional Manual*. U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Nam, S. H. (2007). *A study on stress in practice and coping styles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Oh, M. J. (2000). A factor analysis of the perspectives on the coping strategies about pract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ediatric Nursing, 6*(3), 423-436.
- Park, I. S., Kim, C. S., Kim, R., Kim, Y. J., & Park, M. H. (2005). Stress, anxiety and fatigu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1*(2), 151-160.
- Park, M. Y., & Kim, S. E. (2000). A study on fir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6*(1), 23-35.
- Park, M. Y. (2001). Stress and anger of nursing student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7*(1), 7-21.
- Peggy, J. W. (1984). Increasing self esteem through self evalu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3*(2), 78-80.
- Seo, W. H. (2006).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